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6

7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不二(41x53) • 이가온

* 이가온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6 / 7

다시 읽는 산방한담	4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아버지와 함께한 하루	15	유학의 명암
따뜻한 이야기	18	작은 친절이 가져온 행운
운명보다 강한 열정	20	노숙자들의 전설 크리스 가드너
옛날의 금잔디	22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죽음
아름다운 마무리	26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는 어르신
숨어서 피는 꽃	28	감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사찰의 숲을 거닐다	32	생물자원의 보물창고 무등산 - ②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36	명령은 이제 그만!
특별기고	39	死대강 생명살림 100일 수행길 참가기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2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6년 7월 1일 발행 / 통권 257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글·법 정(法 頂)

한 생명의 출생에는 어머니의 희생이 따릅니다. 인간이든 미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어머니를 거쳐서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뿌리는 바로 어머니입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불일암에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저한테는 전화가 없으니까 절의 사무실에서 쪽지가 왔습니다. 그 쪽지를 받는 순간 문득 '아, 이제는 내 뿌리가 꺾였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속가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자 내 뿌리가 꺾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모성은 누구보다도 생명이 귀하고 소중함을 압니다. 어

머니는 우주의 생명력을 사랑으로 빚어서 탄생시킨 창조주입니다. 누구도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창조를 지닌 어머니의 힘으로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도 바로 어머니의 몫입니다.

처음부터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의 여성이었지만, 자식을 낳아 기르는 동안 애간장을 태우며 밤잠을 못자고 참고 다독거리면서, 하루하루 어머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범한 여성이 자식을 통해서 어머니가 되어 갑니다.

이와 같은 어머니 밑에서 부처님 같은 성인도 나오고, 카드 빛 갯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살인자도 나옵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어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가, 어떤 관심을 받고 살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을 때 세상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져야 합니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는 안락과 행복을 원하고, 폭력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이치를 안다면 나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서라도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의 목숨을 빼앗아선 안 됩니다.

생명의 존귀함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동물이든 생물이든,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존귀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달을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삶아 먹고 뼈는 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나가 보니 수달의 뼈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핏방울 자국을 따라가 보았더니 그 뼈가 다섯 마리의 수달 새

끼들을 안고 있었답니다. 전날 죽은 어머니가 새끼를 못 잊어서 뼈로써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 새끼들을 두고 죽은 한이 얼마나 모질게 맺혔으면, 뼈가 핏방울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새끼들을 안고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비심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살아 있는 모성에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신라시대 혜통(惠通)스님의 전기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그는 이 광경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아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도를 이루었다는 일화입니다. 이 수달을 잡아먹은 사람이,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훗날 혜통 국사가 되어 역사에 오릅니다. (중략)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앞서야 합니다. 그것이 첫째가는 가치가 되지 않으면 사람 사는 세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안다면 누구나 절실히 살아야 합니다.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진

리의 실체를 보려면 가장 하잘것없는 미물일지라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런 도리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꺼리고 싫어합니다. 이런 도리를 안다면 타인을 폭행하거나 죽일 수는 없습니다. 또 남을 죽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과로써 다음에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인과의 도리를 믿는다면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 막된 세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자들이 받아 지니는 ‘보살계(菩薩戒)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원력으로 지혜와 자비를 실현해 나가는 재가보살이 받아 지켜야 할 실천 덕목

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살계 제 1계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 살아 있는 것을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수단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 즉 죽이는 인연과 죽이는 방법과 죽이는 업으로 살아 있는 것을 죽여선 안 된다. 불자는 항상 자비스런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오만한 생각과 통쾌한 마음으로 살아 있는 것을 죽인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불살생(不殺生)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직접 살생이든 간접 살생이든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가치입니다.

불살생. 생명을 죽이거나 해치지 않는 것은 불교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다. 이것은 단순한 생명 존중 사상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동등한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부처의 씨앗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생명체를 살상하는 것은 그 존재가 부처 되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이며, 이것은 크나큰 죄악입니다. 설령 적이라 해도 그는 나와 똑같은 불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불교에서 불살생 계율을, 자이나교에서 아힘사, 비폭력을 실천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람이든 미물이든 모든 존재 안에 깃든 불성, 신성, 하느님의 씨앗을 인식하는 것이 종교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은 살상을 저질러 왔습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는 다른 생명체들을 착취하고 무시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또한 자기중심의 종교는 타 종교에 속한 이들을 이단과 사탄으로 낙인찍고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마다 사랑을 말하고 자비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어쩌서 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입니까? 지구 어디에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벽제 화장터에 다녀왔습니다. 연습 삼아서, 언젠가 나도 그곳으로 갈 테니까 한번 가 보았습니다. 결국 화장터가 우리 인간의 종착점 아닙니까?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를 볼 때, 그 사람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기독교도들은 전에는 매장을 주로 했는데,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국토 관리 차원에서도 화장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중략)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웬 젊은 여자가 온 화장터가 떠나가도록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아봤더니, 2개월 된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잠자다가 엎어져서 질식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가 통곡을 하는데, 저도 다른 때는 울지 않건만 그 통곡 소리를 들으니까 저절로 눈물

이 났습니다. 어른의 경우에는 넉넉 잡아 두 시간이면 다 타는데, 2개월 된 아이는 30분 쯤 돼서 나오는데다 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이야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개월밖에 안된 천진한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질식해서 죽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엄마와 가족하고 전생에 무슨 까닭이 있었을 겁니다. 그 엄마가 그렇게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업을 일찍이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어린 자식을 여의고 그렇게 통곡하게 된 것이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 생명이 탄생해서 채 피어나지도 않고 죽는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돌이켜 볼 때 산목숨을 해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저 자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불살생계(산목숨을 죽이지 않겠다는 계) 한 가지만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해 온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계를 받지 않았더라면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살생을 했겠습니까? 제가 산목숨을 해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미물 같은 것이라도 탁 쳐서 죽이고 싶은 순간적인 충동이 날 때, 한 생각 돌이켜서 자제할 수 있습니다. (중략)

오늘날 생태계의 이런 혼란은 인간 본위의 개발, 산업화, 지나친 소비, 여기에서 온 인과관계이자 하나의 과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은 사람뿐이 아닙니다. 일체중생입니다. 서양의 종교와 동양의 종교가 크게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서양은 인간중심입니다. 모든 생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종속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사상은 생명은 다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생명이 기준입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자비이고, 서양은 인간 본위의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서양

은 인간본위이고 동양은 생명본위입니다. 오만한 인간들이 저지른 일들의 결과가 오늘날과 같은 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산목숨을 해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살기가 생깁니다. 하다 못해 파리나 모기를 잡을 때에도 무심코 잡지만 살기가 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목숨을 해치면 우리 심성 가운데 본래부터 갖춰진 자비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 다음의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무에서 잎사귀 하나라도 의미 없이는 따지 않는다. 한 포기의 풀꽃도 꺾지 않는다. 벌레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여름밤 램프 밑에서 일을 할 때, 많은 날벌레들이 날개가 타서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창문을 닫고 무더운 공기를 호흡한다.”

이분은 보살계를 받은 불자도 아닙니다. 생명의 원리를 알게 되면 저절로 이런 자비심이 우러납니다. 그

가 종교를 가졌든 갖지 않았든, 어떤 일에 종사하던 간에, 생명의 원리를 안다면 저절로 이런 자비심에 접근하게 됩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부득이 눈발에서 잡초를 뽑는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이 없지만,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 있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잡초일지라도 함부로 뜯어서 생명을 해치는 일은 윤리적으로 죄가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심코 나뭇잎을 따지 않습니까? 눈발에서 생존을 위해 경작을 하면서 잡초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길 가다 아무 까닭 없이 무심코 꽃과 나뭇잎을 따든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윤리적으로 죄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세계에서는 식량난이나 지구 자원 보존 차원에서라도, 또 인간의 심성을 순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저급과 같은 육식 위주의 식생활은 개

선되어야 합니다. 살아 있는 생명의 존중 없이는 앞으로 인간은 더욱 잔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야생동물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밀렵꾼들 때문에 우리의 네발 달린 형제들, 날개 가진 형제자매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계에도 큰 이별을 가져와서, 인간 생활 자체가 그만큼 위협을 받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산골에 가면 순진무구한 짐승들을 텃과 총으로 다 잡아잡니다. 인간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채식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기자가 그에게 “왜 당신은 채식만 합니까?”하고 묻자 “왜 짐승의 시체를 내가 먹어야 하는가?”하고 답했습니다.

소나 짐승에게도 친척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제 명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됩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그 원한까지도 같이 먹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좋습니다. 특히 무슨 잔치나 생일날, 혹은 제삿날이면 고기를 잔뜩 사다가 삶고 볶고 굽곤 합니다. 그도 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날, 왜 다른 생명을 죽인 것을 먹어야 합니까? 간접 살생입니다.

그런 중요한 날에는 산목숨을 죽이지 않고, 얼마든지 채식으로써 상을 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돌아가신 날, 한 생명이 이 지상에서 우리 이웃으로부터 사라져 버린 이런 날도, 우리가 생각이 깊다면 그날 하루만이라도 고기는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날, 다른 생명을 죽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면 한 달에 몇 차례씩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날은 온 집안 식구들이 채식만 하는 날로 정해서 지키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승려들은 술 먹고 고기 먹더라도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헛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

(祖師 종파를 세워 높은 가르침을 편 큰 스승), 바르게 깨달은 분들 중에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업의 놀음에 불과한 짓거리입니다. 그 사람의, 그 중생의 업의 놀음에 불과합니다. 그럴듯한 말장난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지혜와 자비에 어긋난 행은 바른 행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옷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은 서울 구치소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아는 분의 자식이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어 있는데,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재소자들이 이 승복보다는 조금 진한 색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승복의 색을 누가 선택했는지, 교도소 죄수복보다는 약간 고급스럽긴 하지만, 교도소에서 입은 옷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수련을 거치고 나면 그런 재난에서 벗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초기 승단의 모습을 읽고

알았을 때, 지금은 그렇게 따라 할 수 없지만 그 정신만은 이어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승복만이 아닙니다. 겉옷이든 속옷이든 양말이든 몸에 걸치는 의복에 대해 그런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은 출가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치의식이 세속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속 사람들은 화려하고 빛나는 것을 내세우지만 출가 수행자들은 가장 못한 것, 가장 하찮은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지니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누리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기는 쉽습니다. 쓰지 않고 잔뜩 모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 시대에는 가난해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투철한 자기 삶의 철학이 있지 않고는 가난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스님들이 그렇습니다. 실직될 일도 없고, 밥 굶을 일도 없고, 자식 때문에 속 썩을 일

도 없고, 얼마나 흥가분합니까?

원효 스님이 쓴, 처음 출가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발심수행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행자라망(行者羅網)은 구피상피(狗皮象皮)요, 도인연회(道人戀懷)는 위입서공(蝟入鼠宮)이나라.”

수행자가 비단옷을 입은 것은 마치 개가 코끼리 가죽을 쓰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사치스러운 옷을 입는 것을 개가 코끼리 가죽을 쓴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비단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명주로 짠 옷이나 털옷도 입지 못합니다. 가죽 허리띠나 가죽 신발도 착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비구계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옷에 대해서 가끔 그렇게 되돌아보십시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30년 낡것 입은 옷입니다. 오래 길이 들고 옷이 가볍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스님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제가 전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고려사라는 절에서 한두 달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땀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치는 날,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웬 덩치 큰 흑인 여성이 계속 제 곁을 맴돌더니 매우 공손하게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무척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옷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불교 수행자들이 입는 옷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름답다고 연신 찬사를 하고 갔습니다.

또 제가 파리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연장 파는 가게에 연장을 사러 가는데, 지하철에서 내려 막 계단을 올라갈 때 웬 예쁘장한 아가씨가 뛰어오더니 감히 나로서는 경험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를 끌어안고 제 볼에 키스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매우 아름다워서 그런 행동이 나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리하

면 세계적인 유행의 도시 아닙니까? 여기서는 별 볼일 없는 이런 먹물옷이 외국인 눈에는 그토록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한번은 제가 무슨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여름에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름에 삼베옷 입을 때 아닙니까? 밀짚모자 쓰고, 삼베옷을 입고 갔습니다. 어떤 가게에 들어갔더니, 그 가게 주인이 무척 예의바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기레이데쓰네(매우 아름답습니다)”하며 반겼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한번 만져 봐도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예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했더니 옷이 매우 좋다며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먹물옷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가 봅니다.

이 먹물옷은 유행도 타지 않고 사계절을 입어도 물리지 않는 빛깔입니다. 또 험렁하니까 무척 자유롭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우리 수행자들이 입는 겨울 누비동방과 누비두루마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옷고름 대신 단추를 달았습니다. 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승려들이 입고 있는 옷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착안한 것입니다.

옷이 날개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한테는 옷이 날개가 되어서 안 됩니다. 날개일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옷은 검소하고 단정하게 입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옷가지들을 얼마나 많이 입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과 털로 된 옷은 될 수 있으면 입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 업이 됩니다. 남의 생명을 해쳐서 만든 옷은 될 수 있으면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이 빈 사람이 호사스러운 옷을 입으면 그 자체가 천박하게 보이고, 속이 찬 사람들은 아무 옷을 걸치더라도 그 옷이 빛나 보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세 가지를 평소에 몸에 익혀 두어야 합니다. 이 막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나름의 어떤 청정한 생활규범과 질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계행(戒行)의 옷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청정한 생활 규범으로써 옷을 입어야 합니다.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제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제정신 똑바로 차리는 선정의 옷, 또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지혜의 옷을 몸에 익힌다면 어떤 옷을 입더라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또 옷이 빛

이 납니다. 그것이 일반인들과 신앙인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해서 청정한 계행과 선정과 지혜를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몸에 걸치는 어떤 옷도 다 빛이 납니다. 그러지 않고는 무슨 옷을 입는 다 하더라도 그 옷에 얽매이게 됩니다. 옷걸이가 됩니다. 이런 옷을 입는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고, 삼복더위와 엄동설한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 2002년 5월 19일 부처님오신날 /일기일회(一期一會)

일요특강 - 길상사 오감(五感) 자기경영 아카데미
행복이 가득한 집 '남편, 내 편 만들기'

이병준 상담심리박사

7월 24(일) 오전 11시 / 길상사 설법전

7월 특강은 부부 사이의 갈등과 관계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을 찾아주기 위해 오랫동안 부부 상담을 해온 부부 상담 전문가 이병준 박사를 초청합니다.

이병준 박사는 현재 삼성경제연구소(SERICEO)와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등에서 웃음임상, 부부치료 상담에 관련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으며, 경기도 평촌 살림가 족공동체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저서로 「남편 사용 설명서」, 「아내 사용 설명서」, 「가족의 재탄생」 등이 있습니다.

유학의 명암

글 • 김광석(나고아대학 교수)

마흔을 넘어서 유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생활할 기회를 얻었다. 캐나다로 출국하기에 앞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들러 문안 인사를 드리고 떠나기로 하고 고향을 찾았다. 아무리 외국에서 생활한다지만, 또 다른 나라로 뒤늦은 학업을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나로서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은 돈이지만 피약벌에서 농사일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부모님께 드리려고 용돈도 챙겼다. 출국하기 전날 아버지께 살며시 내밀었다. 그랬더니 아버지 역시 먼 나라로 공부하러 떠나는 다 큰 자식의 경제사정이 걱정이셨나 보다. 그래서 힘들게 모

은 돈을 비행기 샅이라도 하라며 전날 먼 소재지까지 나가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다.

결국 밀고 당기다가 우연히도 걸봉투만 다르고 담긴 내용물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와 나는 끝내 이렇게 합의했다. 아버지는 돈이 아닌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고 가기로 하고 서로 준비한 것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해서 모양새는 물물교환의 형태가 되고 말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부자간의 마음만은 봉투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안고 지구 저편에 있는 캐나다로 당도에 올랐다. 출국 전 홈스테이 집을 선택할

때에 미리 나이 드신 분들 집에 살고 싶다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나의 희망대로 연로하신 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 내심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비록 먼 나라의 피부색이 다른 노인이지만 대리 만족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이 솔직한 나의 심정이었는지 모른다.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은 비록 피부색과 문화는 다를지라도 인간의 내면에 있는 본성은 동과 서 그리고 남과 북 그 어디에서나 다를 것이 없었다. 지구촌이 때로는 이념과 종교로 대립하고 때로는 경제논리로도 대립하고 살지만 그 저변에 깔린 사람들이 지니는 본성만은 어쩌면 모두가 하나같이 똑같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내가 좋으면 남도 좋다는 말을 늘 하셨던 것 같다.

그곳에서 나는 비교적 한가한 시간에는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의 교민들과의 시간을 함께 하곤 했다. 뒤늦게 공부한 자가 어디 한가한 시간이 있느냐고 할지는 모르나 그때는 좌우간 한가한 시간이 꽤 많

았다. 그래서 한인회도 나갔었고 일본인들이 함께 모이는 곳도 나가곤 했었다. 거기서 만난 양국의 교민들을 통해 들은 유학생을 보는 솔직한 시각도 들을 수가 있었다.

벤쿠버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단기간의 언어 연수코스로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운타운에 나가면 학생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마치 한국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이다. 게다가 방학 때면 그 숫자는 대폭 늘어 한국 일본 홍콩 등의 동양 사람들이 판을 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민들이 보는 단기코스 유학생들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은 않다.

그 이유는 무분별하고 절제되지 않은 젊은이들의 행동 때문이다.

부모를 떠나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부모의 입장으로 그들을 쳐다볼 때는 차마 눈

뜨고 볼 수조차 없을 만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경들도 비일비재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BMW를 연상케 한다. 오죽하면 교민들은 단기유학 오는 한국 학생은 머느리로 삼지 않겠다고들 하겠는가.

물론 모두가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나와 한집에 살았던 한 여학생은 나와 같은 국적을 가졌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정도로 행실이 그렇게도 바를 수가 없었다. 외모도 빼어났지만, 용모도 늘 단정했다.

모르긴 해도 가정교육을 잘 받은 학생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방과 후면 혼자서 박물관과 원도쇼핑 그리고 영화감상 등은 하여도 다른 학생들과는 어울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어울릴 만한 친구가 없었는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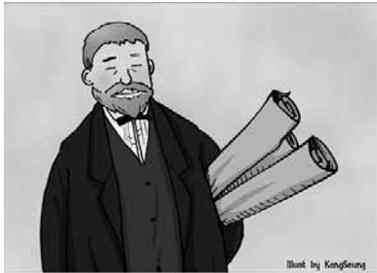
그곳에서의 생활을 통해 나는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과도 생활 모습이나 사고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일본에 유학 와 있는 학생들은 단기 유학생

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과 대부분의 학생이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 다시 말해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시간에 쫓겨 공부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절제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내가 벌어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은 돈의 가치를 알고 산다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본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았다. 요즘 한국의 영어 붐으로 인해 너나 할 것 없이 외국에 나가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문화와 엉뚱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은 별난 나의 성미 탓만은 아닐 것이다. 성능은 좋으나 안전장치가 미비한 승용차라면 그것은 고급 승용차가 아닌 달리는 흥기이지 않겠는가. 영어 붐으로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부모님, 영어유학을 보내기에 앞서 자녀의 브레이크 점검부터 하셔야겠어요.

작은 친절이 가져온 행운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차를 몰고 가던 노부부가 호텔의 객실을 구하지 못한 채 필라델피아의 허름하고 작은 호텔을 찾았습니다.

“예약을 못 했는데 혹시 방이 있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자신의 호텔에 빈방이 없던 직원은 다른 호텔에도 수소문 해봤지만, 도시행사로 어느 곳 하나 빈방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빈 객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바람도 치고 밤도 늦었으니 제 방에서 묵는 것도 괜찮으시다면 내어 드리겠습니다.”

노부부는 종업원의 방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다음날 호텔을 나서며 고마움에 방값의 3배를 건넸으나 그는 자신의 방은 객실이 아니므로 받을 수 없다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 여전히 그 호텔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던 직원에게 뉴욕행 항공권과 초대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묵었던 노부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휴가를 내고 노부부를 방문했던 그에게 노신사는 최고급으로 만들어진 호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이 호텔을 지었소. 이 호텔의 경영인이 돼 주겠소?”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호텔로 알려진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이 호텔의 초대 경영자로 세계 굴지의 호텔 체인을 이룩한 조지 볼트(George Boldt)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작은 ‘친절’이라도 ‘진심’을 다해 베푼다면, 그 ‘보답’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최선’ ‘친절’ ‘진심’ ‘보답’ 등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에 충실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 흔한 단어에 최선을 다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달의 명언 ●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 플라톤 -

* 출처 : 따뜻한 하루

노숙자들의 전설 크리스 가드너

글 • 김창수(희망아카데미 원장)

샌프란시스코 거리의 노숙자에서 월스트리트 정상에 오른 살아있는 전설, 2006년 <영화 행복을 찾아서 (윌 스미스 주연)>로 제작된 실제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55세), 한때 5세 아들과 지하철역 화장실을 전전하며 살았던 노숙자에서 2,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재산가로 변신했다. 고액 기부로 과거의 자신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그는 인생 역전의 살아있는 증거로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의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

1954년 미국 밀워키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크리스 가드너는 난폭한 계부 때문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매일 계부에게 맞는 엄마

와 세 누이의 모습에 격분한 크리스는 8세 때 계부가 살던 집에 불을 질러 곧바로 남의 집에 입양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여러 집을 전전하는 여건에서도 어머니와 삼촌들의 도움에 용기를 얻어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러나 학비가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1972년 해군에 입대했다.

가드너의 어머니는 고된 가정환경 속에서도 가드너에게 “원하기만 하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쳤다. 제대 후 딱히 할 만한 일이 없어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했다.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투자하여 의료기기 판매에 나서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결국 그의 부인은 힘든 생활을 못 견디고 어린 아들을 남겨 놓고 집을 나갔다. 집세와 세금 때문에 거리로 내몰린 후 교회와 노숙자 쉼터 등을 전전하던 가드너는 배짱 하나만 믿고 증권회사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 합격했다. 20여 명의 인턴 중 단 한 사람만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데다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몇 달간은 월급도 없었지만 그는 꿈과 행복을 위해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쉼터에서 제공되는 수프로 끼니를 해결하고 공중화장실 세면대에서 아들을 목욕시켜야 했던 고단한 현실에서도 동료들에게 절대 자신의 현실을 알리지 않고 밤을 새우며 독학을 하였다. 크리스는 마침내 그의 근면 성실함을 알아본 고객 중 한 사람에게 스카우트되어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회사인 ‘베어 스텐스’에서 일하게 되었고 1989년에는 마침내 자신의 회사 ‘가드너 앤 리치 컴퍼니’를 설립하였다. 회사

설립 10년 만에 회사는 천만 달러의 수익을 돌파했다. 그의 재산은 약 2,00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많은 단체에 고액 기부로 자신의 과거처럼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크리스 가드너의 인생 역전은 오직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돈을 벌겠다는 확신에 찬 신념으로 보낸 절체 절명의 시간이 있었기에 노숙자들의 전설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식을 버리는 세태에서 자신의 아들만을 지켜주 고자 쉼터에서 제공하는 수프로 끼니를 해결하고 공중화장실 세면대에서 아들을 씻겨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참고 견뎌낸 가족 사랑이 있었다. 그 가족 사랑을 바탕으로 삶의 강한 의지력은 시작되었고 노숙자에서 2,000억 원의 자산가로 인생 역전한 그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다.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죽음

글 • 윤언덕(작가)

사람이 살다 보면 위협하게 생명의 고비를 넘길 때가 있다. 우연히 신문에서 어느 명사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경우를 칼럼으로 쓴 것을 보고 나도 그런 적이 있었던가 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나는 죽을 뻔한 고비를 딱 세 번 우발적으로 당했다. 남들처럼 불치의 병에서 회복되어 살아났다는 그런 영웅적인 투병 경험은 아니지만 내가 비명횡사할 뻔한 첫 번째 기억은 군에서 제대한 이듬해 여름 방학 때였다.

동아리 멤버의 누님 부부가 사는 가덕도라는 섬에 친구들과 함께 2박 3일의 일정으로 이른바 여름 캠핑을 간 적이 있다. 더위를 식히느라 물에 들어갔다가 발을 헛디더 깊숙한 곳에 빠지는 바람에 물귀신이 될 뻔했

다. 다행히 그곳에 주재하던 해양경찰이 실신 상태의 나를 건진 후 인공 호흡을 하여 겨우 살려 놓은 것이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 중에는 에드가 케이시(1877~1945)식의 전생을 언급하는 이야기가 서두에 등장하고, 정신과 의사인 김영우 박사가 소개한 전생퇴행에 관한 책들을 읽어 들어보아도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온다.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장에서 방바닥 쪽을 내려다본다는 것이다. 이른바 임사체험(臨死體驗)과 유체이탈(遺體離脫)이 그것인데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광등이 붙어 있는 천장에서 죽은 자신의 모습과 울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후 영혼

은 다음 세상으로 간다는 이야기로 나는 그러한 내용을 믿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어 거의 죽어가던 그 날, 바다 위에서 물에 빠진 나를 내려다보아야 했는데 그런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다.

발을 헛디딘 순간 “사람 살려!”하고 외쳐야 했으나 갑자기 물이 입에 들어오니 미처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물이 코와 입으로 계속 들어옴을 느끼는 순간 ‘아,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를 절감했던 아찔한 날이었다. 나는 이후 지인들에게 그 사건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는데 모두 내게 “그러니 당신은 지금 덤으로 살고 있군.” 하며 놀라워한다.

두 번째 죽을 뻔한 순간은 출근하다 발생했다.

당시 내가 다니던 회사는 7·4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었다. 설명하자면 서양식의 출퇴근시간제인 9 to 6제를 탈피하여 7시에 출근하여 4시에 퇴근하는 제도를 의미하였는데, 이는 발상을 바꾸어 새로운 것

을 창조해보자는 사주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결과였다. 그러나 그 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야 말았다. 9.6제에서도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지 되지 못하고 11시에 퇴근하던 마당에 출근 시간만 두 시간 당겨놓은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7시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매일 다섯 시에 일어나야만 했다. 당시 회사는 부산의 변두리 바닷가에 새로 지은 자동차 공장으로 집에서 그곳까지의 거리는 무려 30km의 거리였기에 씻고 밥 먹고 서류 챙겨서 집을 나와서 회사에 도착하면 6시 30분이 되도록 해야만 했다.

그날 새벽 5시 30분경, 새벽 일찍 운전대를 잡고 출근하는 중이었다. 2차선 차로를 몰고 고속도로 나들목에 진입하려던 순간 반대 차원에서 차선을 무시한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내 차를 향해 순간 돌진했다. 놀란 나는 급히 차를 우회전시켰는데 그 덤프트럭은 내차를 아슬아슬하게 비켜 그대로 반대 차선 옆의 가로등을 들이받고 말았다.

새벽이어서 도로에 차가 없어서 내가 마음 놓고 차를 우회전시킬 수 있었기에 망정이지 옆 차선에 차들이 있었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납작한 상태로 황천길을 갔을 것이다. 이후 119구조차가 오고 경찰차가 당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회사로 향했다. 저녁에 TV를 통해 지역뉴스를 보니 가로등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고장 난 덤프트럭 운전사는 충돌 이후 크게 다친 것으로 보도되었다. 아마 내가 덤프트럭을 피해 급히 우회전해서 피하지 않았다면 그날 나는 즉사했을 것이다.

세 번째 기억은 이렇다.

몇 년 전 아내와 딸아이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룸미러 창이 뒤차의 앞 얼굴(라디에이터 그릴)로 딱 차 있는 것을 보았다. 3차선이었는데도 시속 120km의 속도였고 앞차와 내 차와의 거리는 2m가 채 되지 않았다. 뒤차는 가스를 실은 대형 탱크로리 트럭이었다. 비상등을 누르고 클랙슨을 눌렀지만, 뒤차는 아랑곳

하지 않고 내 차를 추돌할 기세였다. 짐작건대 그 차 운전사는 졸음운전 중인 것 같다. 급기야 나는 앞차를 추돌하지 않기 위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했다. 졸다가 놀란 뒤차 운전사 역시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그 차는 회전하여 3개 차선도로를 차지하고 말았다. 그 차를 따라오는 뒤차들이 있었다면 굉장한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 그날의 사건은 구사일생이라 표현해야 맞을 것 같다. 내가 죽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채 피지도 못한 어린 딸아이에겐 번고가 생기지 않은 것은 천지신명께 감사할 일이다.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언제든지 찾아올 죽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위기를 함께 했던 아내도 공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내가 죽거든, 매장하여 후대가 사용해야 할 국토를 점유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화장(火葬)해 달라, 수의(壽衣)를 입히거나 화장(化粧)을 하지 말고 평소 즐겨 입는 옷차

림으로 입관(入棺)해 달라, 장례식은 친한 친지만 연락하며 지나칠 정도로 최대한 검소하게 해 달라, 불치병에 걸려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요망 사항을 가족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 이후 장기기증 서약을 하게 되었다.

10만 년에 달하는 인류 역사 중 최근 수백 년을 제외하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항상 30세 이하였다. 로마 제국 시민의 평균 수명은 28세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한다. 늙기 전에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이야기다. 사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죽음은 나이와 뚜렷한 연관성 없이 날마다 남녀노소가 접하는 위험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16세기 후반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사상가인 몽테뉴는 그 시대 말엽의 사회상을 관찰하고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노령으로 죽는 것은 드물고, 특이하고, 놀라운 현상이다. 다른 형태의 죽음보다 훨씬 부자연스럽다. 그것은 그야말로 마지막 남은 극단적

인 형태의 죽음이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로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지금 이 시점,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굉장히 초과해서 사는 특이한 삶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의학자들이나 생명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노화라는 현상은 결국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기보다 부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많이 늙지 않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경박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의 죽음을 그 누구도 예견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자녀들도 세상 물정을 대략 알 수 있는 정도로 성장했으니 이런 나의 희망 사항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어차피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론해야 할 사항이고 ‘넘어야 할 산’ 같은 문제이기에 정면으로 대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정리를 해 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본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는 어르신

7월 결연 대상자-이중섭 어르신

부지런히 살았지만, 가난뿐인 삶
“어르신, 오른쪽 눈과 손가락은 언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중섭 어르신은 한 마디만 남은 중지를 만지면서 가난했던 어릴 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이 10살 때 갑자기 앞이 뿌옇게 변하는 것을 느껴 부모님께 말했지만, 가난한 시절 못 먹어서 그렇다며 참으란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은 제대로 된 치료 한번 하지 못하고 오른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어르신이 18세가 되던 해 그나마 의지해 왔던 아버지께서 생활고를 비판하며 자살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큰 충격과 슬픔이었지만, 어머니와 두 명의 여동생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19

살의 나이에 교복에 들어가는 뱃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중, 동료 가 기계를 잘못 작동시켜 가운데손가락 두 마디가 잘리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치료 기간에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장까지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치료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르신은 다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야채가게에서 허드렛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야채가게를 마련하고자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했던 종잣돈 1억 원을 모았습니다. 어르신은 야채가게에서 처음 일할 때부터 동고동락한 형님과 함께 야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형님이 가게 계약을 핑계로 어르신 돈을 챙겨 해외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장애를 지닌 어르신은 결혼도 포기하며 모았던 돈을 모두 잃고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일용직 노동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불안한 나날들

이중섭 어르신은 보문동의 어두운 반지하 방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습한 방한 칸짜리 집이지만 어르신께는 이마저도 매우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그러나 이사를 온 이후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의 계약 조건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이 갖고 있던 250만 원을 내고 나중에 나머지 2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사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지인에게 번고가 생겨 잔금을 갚을 수 없는 상

황이 되었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시간이 지나자 집주인의 빚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이은 집주인의 독촉에 어르신은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수급비를 모아서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50만 원 지원금에서 30만 원을 월세로 내고 남은 돈으로 공과금, 식비, 생계비로 사용하고 나면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모을 여력이 없습니다. 어르신은 돈을 모으기 위해 시각장애와 관절염으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폐지를 줍고 있으나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세상에 혼자 남은 어르신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보증금 250만 원을 지원하여 돕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주거의 문제로 불안한 어르신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감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글 • 김정희(한국부름의전화 대장)

“사람들이 내 아들이 잘생겼다고 하더라구. 그날부터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생긴 줄 알았거든. 내 아들보다 잘생긴 아이가 옆에 있어도 무조건 내 아들이 잘 생긴 거야. 내 마누라, 내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 누구와 비교 할 수 없잖아. 그냥 잘 생긴 거야”

“하-하- 그래, 우리는 누가 좋다고 하면 무조건 좋은 거지”

“나는 양복을 입으면 무조건 벡타이를 매야 하는 줄 알았거든. 양복을 입는데 타이를 매야 한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타이를 매지 않으면 절대로 양복을 입지 않았지”

“나는 빨간 티셔츠를 입었는데 아주 멋있다고 하는 거야. 그 후부터 무

엇이든지 빨간색만 사다 달라고 했지. 심지어 팬티까지 빨간색으로 사달라고 했거든. 사실 빨간색을 아는 것도 아니잖아.”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라고 하는데 전혀 상상이 되지 않거든. 당신은 알아?”

“이 사람아 그걸 어떻게 알아. 한 번도 세상을 본 일이 없는데 검정색인지, 흰색인지 어떻게 알아. 캄캄한 밤은 검은색이라고 하더라구, 아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이 검은색일 거야”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적응훈련인 태안 신두리 해변 길 걷기에 참여한 사람들 중 선천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버스의 중간쯤에 나란히 앉아서

주고받은 대화이다. 가슴 저리도록 아픈 이야기였지만 두 사람은 훈련된 개그맨의 재치 있는 입담처럼 어색함도 어두운 그림자도 없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자원활동자들도 두 사람의 대화 속에 빠져 들었다.

“우리는 여행을 하지만 아무것도 보는 것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뿌— 하는 차 소리만 듣다가 끝나는 거지, 부산이건, 태안이건 다름 것이 없잖어”

“녹음된 차 소리만 들으며 캄캄한 터널 속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 하는 게지”

두 사람의 대화에 빠져있던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곳은 서해대교입니다. 서해대교는 7,310m나 되는 긴 다리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이고요. 우리는 1차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달려가는 승용차 뒷좌석에 여자 아이 한 명과 남자아이 두 명이 타고 있군요”

“서해대교를 막 통과했습니다”

“왼쪽으로 산언덕에 밤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습니다. 밤나무 꽃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사람에 따라 역겹다고 하기도 하고 구수하다고도 합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을 설명해주자 두 사람은 대화를 멈추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가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구면”

“밤꽃이 필 때 장미꽃도 핀다고 했는데 장미꽃이 피었나?”

누군가에게 들었을 기억속의 이야기를 더듬어 계절을 가늠하고 있었다.

이런 설명이 시각장애인의 기억 속에 입력된다면 언제인가 누구와의 대화를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창밖의 풍경에 빠져 있는 동안 광활한 해안, 태안 원북면 신두리 해변에 도착했다. 장애인과 자원활동자가 나란히 팔짱을 끼고 모래 언덕에 섰다. 바닷물 위로 물안개가 뽀얗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해무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해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구름 같은 거예요” “구름이요? 아! 나도 보고 싶다. 내 생애 한 번만이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해무를 보고 싶다”라고 장애인이 말을 한다. 차마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 외면하며 좀 더 적극적인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싶어졌다.

“신두리 해변은 모래가 곱고 돌멩이나 조개(굴)껍데기 같은 것이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혼자서 걸어가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설사 넘어져도 부상당할 염려가 없으니 마음 놓고 혼자서 걸어봅시다” 바닷바람을 타고 내 목소리가 바닷가에 널리 퍼져갔다. 그 소리를 신호로 시각장애인들이 조심스럽게 안내자의 팔에서 손을 놓고 혼자서 걸어본다. 맨발로 걷는 사람도 있다. 신을 담은 신발주머니가 어깨 아래에서 대롱대롱 그네를 탄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운 모래가 발가락 사이에서 발등으로 올라온다. 파도 소리가 가까워진

다. 바닷물이 밀려온다. 바닷물이 정강이를 스치며 지나간다. 그러나 장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원활동자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지시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수 없어 자원활동자가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물속에서 나와 모래 위에 세웠다. 조심스럽게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자신감이 생긴 듯 발걸음이 빨라진다. 뛰어보기도 한다. 자원활동자의 방향 지시에 따라 잘도 걸어간다. 그리고 바닷물 속으로 걸어간다. 옷이 젖는 것도 개의치 않고 물속에 손을 넣어본다.

손으로 모래를 파면 모래가 손등을 타고 흘러가는 것을 느낀다. 모래가 떠내려가고 나면 크고 작은 조개가 남는다. 신기하고 즐거웠다. 정신없이 모래를 판다. 꽤 많은 조개가 모아졌다. 그렇게 모아진 조개를 모래속에 묻어두고 “안녕” 이라 인사를 한다. 그 모습에는 시각장애는 없었다. 그냥 아름다웠다. 천진스러웠다.

반면에 아직도 두려움에 자원활동자의 팔을 잡고 서 있는 장애인이 있다. 두려움 때문에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꾸준히 설득하자 마지못해 자원활동자의 팔에서 떨어졌다.

무엇인가에 부딪힐 것 같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심호흡을 한 후 모래위로 발걸음을 옮겨 본다. 길을 막아서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감이 생겼다. 발걸음을 빨리해 본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이 밀려온다. 이것이 자유였구나! 울컥하는 것이 가슴으로 올라왔다. 정신없이 걸었다. 물속으로도 걸었다. 신들린 사람처럼 달리고 또 달렸다. 뒤 따르는 자원활동자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달렸다. 태어나서 한 번도 마음 놓고 걸어보지 못한 세상을 한꺼번에 걸어보았다. 그렇게 달러가는 장애인을 멈추지 못한 것은 소리 없이 외치는 그분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들었

기 때문이었다.

“나는 자유다”

“시각장애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다”

그런데 어째서 흠뻑 젖은 옷자락 위로 눈물이 떨어지고 있는가? 감동의 눈물인가?

장애인의 그 눈물이 시각장애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라며 장애인과 함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시각장애인들은 촉각과 청각과 후각으로 사물을 인지한다. 시각장애인과 동행을 할 때는 주변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손으로 감지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시각장애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릴 때 시각장애인과 함께 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시각장애인도 아름답고 화려한 세상을 감상할 수 있기를…….

생물자원의 보물창고 무등산 - ②

글 • 박희준(사찰생태연구소 생태연구팀장)

무등산의 풀, 나무

예덕나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덕 나무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사람 주나무와 함께 모두 대극과에 속한다. 대극과 대부분의 식물이 암수한 그루인데 예덕나무는 암수딴그루로서 제주도 등의 섬지방을 포함하여 남부 해안가에 주로 자라지만 내장산에서 자라기도 한다. 어린잎은 붉은빛이 돌지만 점차 붉은빛이 사라지는데 대홍사 공양간 입구 계곡옆에서도 붉은 새잎이 돌아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때로는 식물이 그 지역이 과거에 어떤 지역이었던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 식물 중 하나가 양하라는 식물이다. 그런데 무등산에 양하가 자란다. 군데군데

석축을 쌓았던 흔적이 보이고, 이 석축 주변으로 양하가 자란다. 양하가 자라는 것으로 보아 그곳이 사찰이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양하는 잎이 생강과 비슷한 생강과의 식물로서 뿌리줄기로 번식을 하며, 과거 남쪽지방의 절에서 많이 심었던 열대아시아 원산의 외래식물로서 8~10월에 황색의 꽃이 피는데 당일 핀 꽃이 당일 시든다. 꽃과 어



양하

린잎을 식용으로 하는 이 식물을 남쪽의 절에서 많이 심었던 것은 원산지인 열대아시아이므로 냉해에 약하여 그랬던 것으로 보이며, 무등산 숲속에서 보이는 석축 주변으로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축대 위는 아마도 절터로 추정된다. 석축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절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해본다. 이처럼 절터나 주거지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식물들은 양하 외에도 산수유, 팽나무나 느티나무 노거수, 모감주나무 등 여러 가지 나무와 풀들이 있다.

무등산의 새들

무등산에서 과거에는 조사되었던 중요 식물들이 생육하였으나 현재에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산새들이 많은 것이 위안이 된다. 산새가 많은 것은 그만큼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새들의 울음소리로 어떤 새인지 알지 못하는 한계가 너무 아쉬웠지만 어치,

휘파람새, 동고비, 쇠딱따구리, 직박구리, 흰배지빠귀, 멧비둘기 등을 만나 반가웠다.

무등산 숲에서 만난 가장 큰 새는 어치였다. 물론 꿩의 울음소리로 어치보다 더 큰 꿩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직접 만나는 반가움은 없었다.



어치

어치는 암수 형태의 차이는 없는 우리나라 텃새로서 산까치로 부르기도 하며, 머리꼭대기에서 윗등까지는 황갈색으로 머리에는 검은색의 세로무늬가 있고, 아랫등은 진한 회색이다. 턱밑은 흰색이며, 가슴과 배는 흐린 황갈색이다. 날개는 진한 하늘색이며, 부리는 검은색이고, 다리는 갈색이다. 까마귀과의 무리 중에

서 다른 종과는 다르게 황갈색을 띠고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먹이는 주로 곤충이나 애벌레를 먹지만 겨울에는 나무열매를 먹는다. 어치는 까치, 까마귀와 같이 다른 동물에게 텃세가 심하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숲에 가면 까치, 까마귀, 어치가 주변에서 깹깹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직박구리는 가장 흔하게 보이는 텃새로서 산림지역과 인가 주변을 오가면서 생활하는데 직박구리과의 유일한 1과 1종의 새다. 여름에는 주로 해충을 잡아먹어 유익한 새이며, 겨울에는 과수나 열매를 먹는다. 조상님들이 감을 팔 때 까치밥을 남겨두는 것으로 자연에서 얻는 먹거리를 다른 생명들과 함께 나누는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

숲 속에는 여러 가지 생명들이 함께 살지만 어떤 생명은 자신이 살기 위하여 다른 생명들을 죽이며 살고, 어떤 생명들은 그 생명들을 또 죽이며 살아간다. 이것은 분명히 숲이 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건강한 생

태계를 형성해가는, 인간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시스템일 것이다.



이런 숲 속에서 나무에 해를 끼치는 벌레들을 잡아먹는 딱따구리 종류가 있다. 무등산의 딱따구리 종류는 오색딱따구리, 큰오색딱따구리, 쇠딱따구리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실제 답사에서 선보인 딱따구리는 쇠딱따구리 한종이다.

쇠딱따구리는 딱따구리 종류 중 가장 작은 종으로 흔히 보는 참새보다 약간 큰 정도로 암수의 깃색 구분이 거의 없다. 주로 나무에서 벌레를 잡아먹고, 나무에 구멍을 파내어 동지를 틀고 번식을 한다. 물론 나무 열매를 먹기도 한다. 나무 위에서 주

로 생활을 하고 나무 아래로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

무등산에는 텃새도 많지만 흰배지빠귀, 검은등뺨꾸기, 뺨꾸기, 물총새, 청호반새 등 여름철새도 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한 흰배지빠귀와 울음소리로 확인한 검은등뺨꾸기 2종밖에 만나지 못하였다.

무등산의 숲을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

무등산은 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 이후 엄청나게 많은 등산객들로 인하여 황폐화하고 있다. 이에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여 사유지(특히 묘지)가 많은 무등산을 보전하고자 노력한 덕에 1972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0여 년이 지난 2012년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그런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도 중요하고 국립공원 지정도 중요하지만 보다 시급하게 정비해야 할 과제가 있다. 등산객들의 의식구조 변화를 유도하는 일이다. 무등산은

국립공원임에도 묘지들이 많아 곳곳에 묘지 진입로들이 있다. 그런데 등산객들이 이런 묘지 진입로와 연결하여 샛길들을 많이 만들어놓았다. 이런 샛길들은 산을 황폐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 손길이 미치지 못한 샛길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샛길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답압에 나무뿌리가 드러나기도 하고,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하여 흙이 빗물에 씻겨나가기도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런 샛길에 안내표지를 달아 등산로가 아니니 정해진 등산로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홍보전단을 만들어 등산로 외의 샛길 이용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리고 샛길은 주변의 수목들이 자연적으로 이입되는 자연복원을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막내 국립공원을 만들어낸 내셔널트러스트 운동도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숲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

명령은 이제 그만!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공감대화는 명령보다 질문형으로 말하기를 권장합니다. 명령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는 자력(自力)이 없이 자라게 됩니다. 자력이 없이 자존감을 쌓아가며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우려나서 뭔가 하려고 하기 전에 아이를 몰아잡니다. '이게 무슨 글자야?' 라는 물음이 나오기 전에 한글을 가르치려 하지요.

초등학생의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 중에, 저녁에 엄마가 하라는 것을 다 한 아이가 '엄마, 나 이제 뭐해?' 라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스스로 할 일을 생각해서 하는 힘이 없이,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 인형처럼 엄마의 명령에 맞추어 움직

이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부모의 명령이 시작됩니다. 일어나라, 씻어라, 옷 입어라, 밥 먹어라, 학교 가라..... 숙제해라, 치워라, 정리해라, 얼른 자라..... 등의 명령에 부모도 아이도 익숙합니다.

명령은 그 말에 따를 것인가? 아닌 가만 생각하게 합니다. 대답은 네, 아니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하지 않고 질문형으로 말한다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답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답을 생각하면서 아이의 생각하는 힘은 자랄 것입니다.

명령하지 않고 말할 수 있나?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대화를 나누고 있고, 아이 둘이 놀고 있을 때, 아이들 소리 때문에 대화가 잘 들리지 않았다면, 부모는 '야, 시끄러워!' 혹은 '조용히 해!' 라고 명령합니다. 크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아이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시끄러웠나 생각하면서, 남의 말이 시끄러울 때는 저렇게 말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체험으로 배우겠지요? 이 경우 질문형으로 말할 때는 '조용히 해줄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바람직한 공감대화는 '엄마와 아빠가 말하는데 너희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네. 지금보다 작게 말해주겠니?'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부탁을 들은 아이들은 소리를 줄이면서 부모를 위해 자신들이 결정하여 소리를 줄였다는 것, 배려했다는 것에 기쁘고, 뿌듯할 것입니다.

위의 설명처럼 연습해볼까요? 학교 가는 날 아침, 초등학생에게 '아침 먹어라!'고 하는 명령을 질문형으

로 적어보세요. 그 다음 어떻게 공감 대화로 할 수 있을까요?

질문형 : _____

공감대화 : _____

여태 해오던 명령들을 질문형의 부탁으로 바꾸면, 명령보다 말이 길어집니다. 길어진 부탁의 말에 아이들의 EQ는 풍부해질 것입니다. EQ가 풍부해진 아이들은 길게 답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 나이에서 나오는 기발한 의견들을 자신 있게 내놓을 것입니다. 그 의견들을 들을 때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아이와 눈 맞추며, 미소로 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력(自力)이 키워지고, 자존감이 높아진 아이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진 아이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압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보기만 해도 밝은 기운을 뿜는 아이가 되지요!

'아침 먹어라'를 질문형으로 '아침

먹을 수 있어?’ 혹은 ‘아침 준비 다 된 것 알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EQ가 풍부해지는 공감대화로 바뀌어 본다면 ‘아침 준비 됐는데, 너는 언제 먹을 준비 되니?’ 혹은 ‘아침 먹을 준비되면 말해줄래? 그 때 국 푸려고 하거든…….’입니다.

부탁을 받으면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부탁을 할 때는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사회는 부탁에 대한 부담감이 많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할 때도, 받을 때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부탁은 상대의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부탁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탁을 상대가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때, 화를 내며 비난한다면 그것은 부탁이 아니고 강요였던 것입니다. 상대가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상대에게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공감해줄 때 진정한 부탁이 되는 것입니다.

부탁에 대해 거절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가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맞지 않는 부탁이라면 정중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거절하고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 때 본인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어제 남편에게 ‘오늘 저녁 먹고 산책갈래요?’라고 부탁하니,

‘난 안가요, 다녀와요.’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녁 후에 느긋이 쉬고 싶어 보였습니다.

‘느긋이 쉬고 싶군요?’라고 공감해주고, 나는 산책을 갑니다.

더위와 함께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의 저녁 산책이 싱그러웠습니다.

死대강 생명살림 100일 수행길 참가기

글 • 이승대(대구모임 회원)

해는 어느덧 중천으로 올라섰다. 오월이라고 하지만 햇살은 벌써 여름을 넘보고 있었다. 내 발을 의지하는 수 밖에 없다. 굵은 땀방울은 이내 셔츠에 소금꽃을 그려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난 오늘 처음이지만, 앞에서 우리들을 이끌고 있는 스님들은 50일째라고 한다.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거나 죽어가는 또는 힘겹게 살아가는 생명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참회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길을 시작했습니다.”며 우리의 발길을 재촉했다. 이 수행단은 지난 4월 영산강을 시작으로 금강을 지나, 지금 낙동강 구간을 지나고 있는 불교환경연대 스님들이다. 대구 낙동강 구간을 맞아 대구의 시민들, ‘제상과함께, 우리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회원들이 수행단과 함께 하고자 모인 것이다. 오늘 가야할 구간은 달성보에서 사문진교까지다.



출발하기 전 달성보 인근 주차장에서 이 수행단의 단장인 범일 스님은 “4대강 사업 이후 예상했던 많은

강변을 걸으며 본 광경은 깨끗하고 주변 또한 잘 정비되어 있었다. 시

월간 ‘맑고 향기롭게’ 원고 모집

보낼곳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성북동323, 길상사내)
이메일 : clean94@daum.net (첨부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하게 뺀 강변 자전거길은 건각들의 폐달이 시원하게 돌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는 강변의 풍경이다. 그러나 강에 조금만 가까이 가면 문제가 시작된다. 흐르지 않는 강은 벌써 녹조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올 초에는 기생충이 창궐해서 많은 물고기들이 죽었고, 깊은 강바닥에는 오니가 가득차 강이 썩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생 무척추동물의 하나인 태형동물(Bryozoa)인 이끼벌레는 낙동강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강에 기대어 살고 있었던 어부들은 잡을 물고기가 사라져 아우성이었다. 사람들이 보는 걸모습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공사 후 강의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 보인다. 실지 직선의 수로와 깊은 수심은 많은 수생동식물의 살아가는 터전을 빼앗아 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다른 동물 또한 강을 떠나버렸다. 낙동강은 그냥 물이 고여 있는 저수지에 불과하게 돼 버린 것이다.

낙동강 물을 더 깨끗하게 한다며 4대강 사업을 하자던 그들의 입으로 이제는 낙동강 물이 더러워졌다고 대구 수돗물 취수원을 더 상류로 하자며 난리다. 못생명들이 떠나버린 강은 결국 인간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우리는 4대강을 막지 못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 공업(共業)이 있다. 함께 풀어야 할 업이다. 모든 사물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면 그 행사에 참가하고, 그것이 안 되면 후원금이라도 내고, 그것도 안 되면 주변에 그 정당성이라도 이야기하면서 함께하자. 모든 일은 나와 관계된 일이다. 그러니 모든 일에 관심과 참여를 하자. 이런 참여가 없으면 변화가 없다. 문제 해결이 없다." 수행단에 참가한 스님이 말씀하신다.

수행단은 6월 18일 안동댐까지 낙동강구간을 마칠 예정이다. 그리고 6월 21일 충주댐을 시작으로 한강구간을 도보로 수행하고 7월 11일 서울

조계사에서 회향할 예정이다. 수행길에 함께하려면 불교환경연대(02-720-1654)로 연락하면 되고 후원 동참은 국민은행 023501-04-152336 예금주 불교환경연대로 하면 된다.

2008년 봄에 법정스님이 법회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우리 국토는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허물고 파괴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다. 어떤 정치권력을 가지고도 이 땅을 만신창이로 만들 수는 없다. 이 국토는 오랜 역사 속에서 조상 대대로 이어 내려온 우리의 영혼이고 살이고 뼈다. 그리고 우리만 살다 갈 곳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물려줄 신성한 땅이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 시대에 이런 무모한 일이 우리 곁에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면, 우리는 이 정권과 함께 이 국토에 대해 씻을 수 없는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며 4대강 사업을 걱정하셨다.

비록 내가 하루 이곳을 걷는다 해도 크게 변화될 것은 없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과 탐욕으로 파괴된 자연과 생명에 사과하고 그들의 죽음을 위로하면서 공업중생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이곳 뿐인 것이 아쉬웠다.

햇살로 덮혀진 바닥은 열기를 토해내고 어느덧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얼굴을 타고 내려왔다. 그리고 못생명이 떠난 낙동강 제방 길은 묵묵히 걷는 수행자들의 참회하는 발자국 소리만 가득 찼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회원님들의 나눔의 실천, 고맙습니다!”



「맑고 향기롭게」의 여러 활동에 기여이 마음을 내어 활동해 주고 계시는 회원님과 자원활동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마다 귀하고 소중한 시간 내어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에서, 외부 시설에서, 길상사 경내에서,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나눔을 실천하시는 여러 회원님들 덕분에 (사)시민모임 맑고향기롭게가 더욱 향기로우시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맑히는 일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회원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 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밑반찬을 지원합니

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맑고 향기로운 김치 나눔 활동 :** 본모임은 맑

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활동과 더불어 3월에서 11월까지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를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경에 마무리 되는 활동으로, 남자 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하며, 단체 봉사자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전화 말벗 자원 활동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대상자 중 홀몸노인, 장애인 등에게 봉사자가 가정에서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지켜보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대화기법 · 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함께해주세요.

*** 진인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 활동 :** 진인 요양원 자원 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정기 자원 활동(매주 월요일, 매월 첫째 일요일)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 활동은 어르신을 위한 점심 무료급식 활동으로 배식, 설거지등을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봉사팀은 봉사 당일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

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 ‘아름다운 만남’ 청소년 정기 자원 활동 :**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홀로 어르신의 집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말벗과 청소를 해드리고, 안마나 동네 산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동감과 발랄함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축된 어르신을 위로하고, 생의 의지를 돋우어 프로그램입니다. 함께 할 청소년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회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 장터를 통해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모임은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 정기 자원 활동 :**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독거노인의 생계비 지원 및 자살예방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해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인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기부문화 진작을 통해 법정 스님의 청빈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매달 발간하는 소식지에 후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1명의 사연 소개와 다음카카오 ‘갈



이까지' 온라인 모금과 더불어 1~2회 거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결연 후원, 의료비·난방비 지원, 사례 관리 등의 공익사업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색나눔장터 안내

'녹색 나눔 장터'는 4월에 시작하여 10월까지 11번 일요일(월 1회 개최 예정)에 회원님과 신도님이 즐겁게 참여하고 운영하는 장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 녹색나눔장터란?

생활 속에서 재사용과 자원순환의 녹색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작은 장터입니다. 직접 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경제교육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 판매물품

- 천연 화장품, 삼푸, 비누, 섬유유연제, 탈취제
- Hand Made 가방 등
- 건강한 된장, 초청, 매실원액 등
- 각종 액세서리 및 종교물품 등

* 장터 참여 품목 : 오래된 물건을 새롭게 리폼한 소품, 직접 재배한 유기농산물, 수제 천연 화장품&친환경 세제, 재고로 남은 환경용품, 공예소품, 친환경 먹거리 등, 개인 재활용품 버

룩시장 참여가능

- 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 장소 : 길상사 프락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에서 진행한 에코투어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31일(화)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공모로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최원형 소장)에서 진행하는 에코투어에 Maekgonggong 자원봉사자 37명이 동참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에코투어는 실천지향적인 자연환경지킴이로 앞장서 가기 위해 폐식용유를 이용해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에코 솔루션'과 사찰의 문화자원과 주변 숲 보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전북 능가산 내소사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25기의 핵발전소(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방사능 유출 및 복원에 대한 문제와 핵폐기물 처리 문제 때문에 핵 발전소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정부의 행보에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남향인 집은 시 보조를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야간에 사용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정수기, 밥솥 등의 전기 플러그를 뽑는 등 생활속 전기 소모를 줄일 것을 최원형 소장님은 제안했습니다.

숲과 전통시장을 찾아서 안내

2016년 숲기행은 '숲과 전통시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일정 안내
- 7월 2일 : 충남 상왕산 목초지와 숲, 개심사, 서산 서산장
- 8월은 휴가철과 더위로 인하여 진행하지 않습니다.
- 9월 3일 : 충남 천리포수목원, 태안 태안장
- 10월 1일 : 충북 옥송봉 충주호 주변의 절경, 단양 단양장
- 참가방법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 만 65세 이하
- 접수 : 9월 숲기행은 7월 3일부터 선착순 40명 전화 및 방문 사전접수(중앙사무국)
- 참가비 : 35,000원(장터 점심 식비 포함)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Maekgonggong
- 장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접수처 : 중앙모임 02-741-4696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

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일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번호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 (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7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4일(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일요특강 '길상사 오감 경영 아카데미' : 24일(일)오전 11시/행복이 가득한 집/이병준 박사 / 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목, 금요일(1,7,8,21,22,28,29일)/오전 9시 30분 ~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14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4,11,18,25일)/매월 첫째 일요일(3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10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6일)/오후 1시30분/세계일화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

남) : 셋째 토요일(16일)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 넷째 일요일(24일)/길상사 경내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5,12,19,26일)/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는 짝수달 매주 수요일에만 진행
- 녹색나눔장터: 넷째 일요일(24일)/길상사 경내

《정기 재정 후원》

-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정기 후원
- 서울번호사회협계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 결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 장학금 후원계좌
외환은행 141-22-01683-9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 3층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작은 사무실은 조리실에 딸린 다용도실로 활용하고, 회원모임공간 일부를 개조하여 사무실과 서류 보관 및 비치와 더불어 회원들을 위한 소모임 공간, 회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3층에는 법정스님 추모공간으로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 법정스님 책임기 모임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법문영상보기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정서지원
- 정기 자원활동가 모집 (사)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설거지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찻마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일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일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일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일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일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 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일 2,3주 토요일
 - 숲가행 자연보호활동 : 매일 4주 월요일
-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감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일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2회차 백일기도

- 입재 : 5월 20일(금) / 회향 : 8월 27일(토)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 각 회차(100일)
- 동참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매일 20가 구씩 차례대로 축원을 올려드립니다.
- 수시로 떡공양, 쌀공양, 꽃공양 등 각종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매월 첫째 토요일)

- 일시 : 7월 2일(토) 오후 7~9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동참금 5천원(개인 축원),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7월 4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백중초재

- 일시 : 7월 6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백중2재

- 일시 : 7월 13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백중3재

- 일시 : 7월 20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백중4재

- 일시 : 7월 27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7월 9일(토) 오후 8시 00분 ~ 7월 10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기도

- 일시 : 7월 21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기도

- 일시 : 7월 27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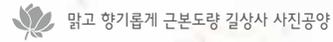
주말 선 수련회 (템플스테이)

- [2507] 7월 9일(토)~10일(일)
- 장소 : 설법전

- 참가비 : 5만원
- 상담전화 : 02-3672-5945
- 입금처 : 신한은행 100-021-136827
(예금주: 길상사)

※ **자비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 안내**

길상사 중무소에서는 자비의 동전 모으기 저금통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모아 주신 정성은 길상사의 사회공헌 활동에 쓰입니다. 또한 모금액은 연말정산 기부금에 포함해 드리며, 매월 첫째주 일요일 주지스님께서 직접 축원해 드립니다.



7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천수다라니기도	7월 2일(토)	저녁 7시	극락전
초하루법회	7월 4일(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 초재	7월 6일(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 2재	7월 13일(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 3재	7월 20일(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 4재	7월 27일(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7월 18일(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7월 21일(목)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관음재일	7월 27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7월 9일(토)	저녁 8시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 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회의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소강당



사진·진각

빗방울이 연잎에 고이면
연잎은 한동안 물방울 유동으로 일렁이다가
어느 만큼 고이면
수정처럼 투명한 물을 미련 없이 쏟아 버린다.

그 물이 아래 연잎에 떨어지면
거기에서 또 일렁이다가
도르르 연못으로 비워 버린다.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중에서〉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
2016년 여름 선 수련회

향기로운 차와 지혜로운 대화!
참 나를 만나고, 새로운 인연이 이어지는 여름 선 수련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자신의 모습에서 새로운 변화를 느끼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길상사 여름 선 수련회에서 삶의 지혜를 배워보세요.

문의 교무실 02-3672-0035 / 총무실 02-3672-5945

※ 자세한 일정은 길상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초발심자경문 강의

불교입문 수계자를 포함해 불자님을 위해 길상사 주지 덕일 스님의 '초발심자경문' 강의를 지난 6월 8일(수)부터 시작했습니다.

초발심자경문은 지눌 스님의 「계초심학인문」,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아운 스님의 「자경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불자들에게도 수행의 지침이 되고 있는 경전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강의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시 : 매주 수요일 주간반 · 오후 2시 / 야간반 · 오후 7시 30분

장소 : 길상사 설법전 / 무료 강의

